

베트남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전망

베트남은 연평균 6%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최근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전력 확충을 위한 전력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요, 2010년까지 연간 10% 이상 증가할 듯

경제성장 지속과 산업화의 진전에다 농촌 지역으로의 전력 보급 확대까지 겹쳐, 베트남의 전력수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0~15% 정도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현재 18개의 주요 발전소에서 연간 약 6,30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7%대의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5년에는 약 8,200MW, 2010년에는 약 13,000MW, 2020년에는 약 27,000~32,000M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의 '2001~2010년 전력산업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2005년까지 전체 발전용량의 41%는 수력, 40%는 가스, 나머지는 석탄 등 화력발전이 차지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53%가 수력, 18%가 가스, 10%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가스터빈을 활용한 신규 발전소 건설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주로 남부와 북부의 해안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 산업부는 과학기술환경부와 공동으로 향후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위한 보고서 작성도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의 전력산업 총 시장규모는 2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발전 부문이 11억 달러, 설비 및 부품 공급 부문이 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마련 계획

베트남 전력공사는 전력산업 확장을 위

해 총 150억 달러의 투자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82억 달러가 발전사업에, 68억 달러가 송·배전 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 보수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01년에서 5년까지 약 41억 달러를 투자하여 20개의 신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15개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산업 확장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나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차관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주요 원조국가는 일본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핀란드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송전과 배전, 농촌 지역의 전기시설 보급, 그리고 다목적 수력 발전소 건설 및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 건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은 농촌 지역의 전력보급 확대, 배전시설의 효율화, 민간인 투자 활성화 등의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며, 아시아개발은행은 발전 및 송전 설비 효율화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 제공액이 전력확장에 필요한 투자소요액의 20%에 불과한 30억 달러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어, 베트남 전력공사는 추가로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전력산업 개방원칙을 확정하고 향후 10년간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20%까지를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자본 투자와 설비 판매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산업 5개 분야, 주요 외국인투자 대상으로 떠올라

베트남 전력산업은 다음의 5개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규 발전소 건립 및 기존 발전시설 확장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베트남의 경험 및 기술 부족으로 신규 발전소 건립사업에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외국계 컨설팅 기업의 발전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둘째, 발전소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또한 외국인투자가 유력한 분야이다. 공적개발원조 자금이 투입되는 발전소 건설사업은 대부분 외국인 사업자, 특히 해당 자금 공여국의 사업자가 사업 입찰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Song Da Construction이나 Vinaconex and Lilama 등 베트남 현지 기업이 중·소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여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셋째, 발전소 설립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기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되는 장비가 기술, 내구성 및 정확도 측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부품 및 소비재 공급, 발전소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이 있다. 기존 발전소에 부품 및 소비재를 공급하는 시장은

〈표〉

베트남 전력산업 수입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 1999 | 2000 | 2001 ¹⁾ | 2002 ²⁾ |
|---------------|-------|-------|--------------------|--------------------|
| 전력 시스템 시장 | 1,200 | 1,500 | 1,800 | 1,980 |
| 발전 시장 | 840 | 975 | 1,080 | 1,129 |
| 컨설팅·건설·보수서비스 | 120 | 145 | 150 | 169 |
| 국내 제조 설비 시장 | 170 | 200 | 210 | 215 |
| 수입 발전설비·부품 시장 | 550 | 630 | 720 | 745 |

주: 1) 추정치 / 2) 전망치

자료: www.usatrade.gov.

그 수요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잠재수요가 큰 시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베트남 정부가 국내기업에 특혜적인 조달정책을 펴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외국인 사업자가 동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단독투자, 합작투자, BOT 및 BTO¹⁾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 투자 시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외국인과의 합작사업이 성공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의 복잡성과 베트남 정부의 투자유

치 경험 부족, 베트남 국내 법규의 미비,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에 기인한다. 현재까지 2개의 BOT 투자와 1개의 단독투자 사업만이 베트남 투자부의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투자부의 소극적인 외국인투자 허가 성향을 볼 때, 전력산업의 외국인 합작투자 개방조치가 정부안대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투자 확대를 허용한 만큼, 향후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鄭顯唱】

1) Build-Operate-Transfer 및 Build-Transfer-Operate.